

이스라엘의 반란

* 6/8(화) 사무엘상 ② 5-10장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p>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 여호와의 언약궤와 전쟁 4:1-11 엘리 가문의 몰락 4:12-22</p> <p>▶ 언약궤의 행방 5:1-7:2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셋 진영에 간 언약궤 · 여호와의 재앙 · 언약궤의 귀향 준비 · 벧세메스에서 생긴 일 · 기랴얌아림으로 옮겨간 언약궤 <p>▶ 회개와 부흥, 에벤에셀 7:2b-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회개 · 사무엘의 중보기도와 응답 · 에벤에셀 :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12) <p>▶ 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p>	<p>▶ 사무엘의 아들들 8:1-3</p> <p>▶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의 응답 8: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5b) ·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b) ·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22a) <p>▶ 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기름 부음 ·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힌 사울 · 암몬과의 전쟁,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사울 <p>사무엘의 고별사 12장 사울의 통치 13-15장</p>	<p>다윗의 등장 16장 다윗과 골리앗 17장 다윗과 요나단 18:1-5 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p>

Before 줄치며 읽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4:3-4).
언약궤는 전쟁 승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부재로 그들은 패했습니다.

After 묵상하기

나는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 언약궤를 통해 보이신 여호와의 능하신 <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보이신 능력입니다(5:6-7, 9, 11).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여호와의 재앙으로 언약궤를 출(出)블레셋 하게 하십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통치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사 59:1).

주님의 손을 볼 수 없는 믿음은 혼돈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은 여호와와의 통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시적인 왕의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표면적/실질적 이유

블레셋의 세력, 암몬 족속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새로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8:1-3).
 무정부 상태의 혼돈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왕정(王政)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8:8).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 26:12).”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부러워합니다(8:20).
 왕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이웃 나라들을 보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손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신정(新政)에서 왕정(王政)으로 바뀝니다.

•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9:1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 29:11).”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10:1).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징조 1	두 사람을 만나게 됨(10:2). → 타인의 입을 통해 사무엘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될 것.
징조 2	떡 두 덩이를 받게 됨(10:3-4). → 기름부음 받은 후 자신의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게 될 것.
징조 3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됨(10:5-7). →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그에게 또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10:9).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란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십시오. 날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